

세계 산업이 제3변모기를 맞게 되자, 중국의 섬유공업은 대응책으로 한국인 기술자 다수 채용

그동안 중국 섬유공업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발전해 왔는데, 그들의 상품은 분명히 값은 매우 싸지만 품질이 위태롭다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중국정부는 떨어진 신용을 회복하고자 각 제조업체에게 안전화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절강성 소흥현 정부(浙江省 紹興縣 政府)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과 환경을 조화시키고자 한국으로부터 많은 섬유·염색기술자를 높은 대우로 초빙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세계적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한 제3 변모기에 대비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계산업은, 18세기인 1760년에 영국에서 제 1 변모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그동안 수공업에 의존하던 섬유산업이 기계설비에 의한 공장으로 생산기술이 일변(一變)하면서 대공장이 설립되었고, 이러한 발전이 세계에 파급되면서 사회구조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구미 여러나라나 동양에서는 일본에서 기계제 섬유공업(機械制 纖維工業)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수공업에 의한 가내 섬유공업의 공원들은 기계공업제 섬유공업으로 쉽게 직장을 바꿀 수 있었고, 눈부신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으로 선진국들은 부국으로 발전하였다.

제 2 변모기는 1990년대에 생산코스트가 매우 싼 나라의 생산이 급증하면

서 세계 섬유공업체제의 세력체제를 한번에 바꿔 버렸다. 이러한 변화는 동(東)측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서(西)측의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자본주의 진영의 냉전대결이 소련진영의 붕괴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동측 진영에 속해 있었던 저임금 나라들이 풀려나면서 기계제 섬유공업이 급성장하여 구미나 일본 등 고코스트국 시장을 휩쓸었다. 그 결과 고코스트국의 섬유공업은 양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코스트국의 섬유산업들은 중국 등 저코스트국으로 생산을 옮기거나 중국 등으로부터 싼 값으로 수입하여 살아가는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제 3 변모기는 섬유공업국의 자원 감소, 환경오염이 심한 현상 때문에 더 이상의 급격한 성장을 억제하려는 제약시장(制約市場)내에서 기업은 살아남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변모의 특징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 1, 제 2 변모기를 웃도는 매우 심각한 기업환경이 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지구의 모든 자원이 감소하고, 인구는 늘고, 환경오염은 급격히 나빠지는 등 지구 자체의 허용한계에 거의 도달되고 있어, 섬유를 포함한 각 업종의 기업들은 제3의 심각한 변모로 빠져들게 된 것 같다. 이러한 추측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으로, 첫째는 지구온난화가 되겠다. 일본 동해 해수 온도가 2~3℃ 오르면서, 잘 잡히던 오징어는 안 잡히고 그동안 볼 수 없던 해파리나 아열대에서나 볼 수 있던 물고기들이 잡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 현상 때문에 제 2 변모기의 동란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최근 전문가에 의하여 발표된 ‘성장의 한계’로 보면 오염은 벌써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지구의 자원은 해마다 꾸준히 줄고 있고, 인구 1인당 식량, 1인당 공업 생산량은 21세기 중기(中期)를 피크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세계 공장이 되므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각종 자원 소비도 급증하고 있다. 세계 주요제조업자들이 중국에서 앞다투며 각종 업종상품을 저코스트로 생산하여 이들 상품을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성장의 한계’ 현상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에 박차를 가해주는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으므로, 자원이나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수출을 장려하는 증치세 환부율(增值稅 還付率)을 553개 품목은 아주 없애고 2,268개 품목은 세율을 낮추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출은 줄 것 같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국의 총 수출은 독일을 앞서가게 되어, 세계 제 2위로 올랐으며, 수년 후에는 미국도 추월할 것 같다. 중국의 각종 제조업 생산규모는 매년 커졌으며, 환경오염, 자원소비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 이익을 올리는 가치관으로, 조악한 상품을 만드는 업자는 정리되고 도태(淘汰)되는 일이 앞으로 많아진다고 하여도, 세계 공장으로서의 위상은 흔들릴 것 같지 않다. 생산 증가 커브(curve)를 과감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머지 않은 장래에 파탄될 수도 있다. 만일에 파탄하면 그 영향은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퍼질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거대한 인도도 자동차, 섬유공업, 염료 등에서 큰 생산국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인도 공업화가 추진될수록 지구의 허용한계에 이르는 기간이 짧아진다. 터키도 조급히 섬유를 증산하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예상컨대 다음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한계를 직접 느끼게 되면, 각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성장 한계 안에서 필사적으로 생산이나 판매 세어를 늘리려는 활동이 많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경쟁 때문에 마침내 세계적으로 윤리, 모럴이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마키아벨리즘적(Machiavellism : 權謀術數的)인 행동을 막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할 목적으로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년 12월 UN의 163개국 및 EU가 제 3회 기후변동 규제에 대한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6종의 온실효과 가스의 삭감 등에 관한 의정서)에 참가한 나라들이 의정서에 따라 온실효과가스를 삭감하면 좋겠는데, 실정은 선진국 기업들이 이상적인 삭감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세계적으로는 설정된 CO₂ 등의 배출량이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배출량이 늘고 있다.

또한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EU가맹국의 3만 종류의 화학물질 재평가 등 록제도인 REACH법도 지구환경을 미리 지키는 것을 전제로, EU가맹국의 정치가들이 화학물질의 무제한 사용에 제동을 걸었는데, 현재 상태는 REACH 법과 비슷한 법률을 만든 나라도 적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각국들은 지구온난화 대책을 표면으로는 찬성하면서, 행동은 종전과 같은 태도라도 상관없는지 현상은 애매하다. 이와 같게 되면 위험하므로 각국의 조정관리능력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한 예로서 일본의 시가(滋賀)대학 교수는 “케인즈(Keynes 經濟學者)의 ‘전쟁의 경제적 원인’이라는 책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나는 요인은 인구의 증가

로 더 넓은 시장을 차지하려는 경쟁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글로벌화 되면서 인구의 격차가 식량문제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각국 정부는 지금 이상으로 관리능력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정관리능력이 약하면 앞으로 닥칠 제 3 변모기에는 제 1, 제 2 변모기보다도 혼란의 규모가 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케인즈’시대보다도 성장 한계에 다가갈수록 폐해가 너무나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 3 변모기는 각국의 자원, 환경, 오염 현상 때문에, 기하급수적 성장이 어렵고, 제약된 시장내에서 기업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섬유관계자 의견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제 3 변모기가 올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세계 섬유공업이나 각 산업은 각기 5가지 흐름에서 기업마다 극심한 생존경쟁을 펼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성장이 제약된 상황에서의 위협(威脅)은 월마트(Walmart)의 저코스트주의가 될 것 같다.

(1) 자원가격이 계속 올라,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언제나 타사보다 싼 값으로 대량 구입하여, 많은 상품을 세계시장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세어(share)를 늘리게 되면 동업 경쟁자 규모는 갈수록 축소되어 마침내 퇴장하는 기업이 많아진다. 이와 같이 영세기업을 몰아내는 대표적인 실력기업이 세계 제 1의 대규모 소매업인 미국 월마트 스토어즈(stores)이다.

이 회사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컨셉을 내걸고, IT를 인용하여 저가격 제품을 조달하고 미국이나 해외 소매점망에 즉시 상품을 분배하여 보내주고 있다. 그런 방법으로 동사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타사보다도 높은 값으로 높은 코스트 상품을 파는 체제로는 바꿀 수 없는 기업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이 세계의 동업자에게는 놀랄만한 존재가 되어 있다. 2006년에 월마트는 세계시장에서 연(延) 72억 명에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는 65억 명이므로 세계 인구보다도 7억 명이 많은 소비자에게 섬유제품을 포함한 각종 상품을 판매한 것이 된다. 월마트 전종업원은 160만 명이며, 동사의 상품조달·공급에 종사하는 사람은 300만 명으로, 미국시장만을 살펴볼 경우에 동사는 2002년에 중국으로부터 의류제품을 포함한 각종 상품 합계(合計)가 120억 달러로 1997년보다 배로 늘었다. 그 후 불과 2년간에 수입량을 50% 늘리고 있어, 그야말로 괴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도에 월마트와 동사의 서플라이어를 합하여 도매가격 계산총액으로 180억 달러의 각 상품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총액의 약 10%가 되는 거대한 금액이다.

동사의 판매사업은 일본이나 독일에서의 판매는 번창하지 못하고 있으나 세계 전체로는 성공하고 있다. 월마트는 오직 저가격을 요구하는 컨셉에, 생산면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제품공급 산지는 현재는 중국이다. 그러한 조달, 판매의 힘이 제 3 변모기의 핵심이 되는 것은 틀림 없다.

(2) 차별화 텍스타일 생산·판매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자원, 환경 대책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경쟁자보다도 신상품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 섬유제조자들의 경우, 세계에서 유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자와 접촉하여, 부가가치가 극히 높은 텍스타일을 직접 납입하는 경쟁이 한층 더

심해질 것이다.

(3) 경쟁자가 적다고 하는 고급 제품 대상의 세계적 브랜드 제품(텍스타일/어패럴)은 비(非)브랜드 제품과는 달리, 높은 값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는 계속적으로 자재나 에너지 비용 등의 생산 코스트가 상승하므로, 언제나 경쟁상대보다는 코스트를 올리는 시기를 늦추거나, 반대로 상품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에서 유명한 진즈 브랜드(jeans brand)를 갖고 있는 리바이스(Levi's)가 월마트에게 굴복한 경위 등을 연구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4) 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경쟁상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 매수가 늘고, 또한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브랜드 힘이 있는 기업의 매수가 늘어날 것이다.

유니클로(Uniclo brand)를 일본에서 확립한 퍼스트 리테일링(First Retailing)이 미국의 고급 의류점 ‘바니즈’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드바이’의 투자기관과의 경쟁에서 실패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은 성장 한계가 뚜렷해질수록, 제조소매점의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나, 이에 따르는 업체들 사이에서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

(5) 테크 텍스타일(tech textile : technical textile), E-텍스타일(Electronical textile 電子衣類) 개발과 확대가 세계적으로 매우 빨라지고 있다. 이들 섬유류의 성장을 위하여는 합성섬유, 장섬유를 생산하는 섬유 상류(上流)와 중류(中流)의 클러스터(cluster) 종합화(綜合化)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종합화는 일국완결형(一國完結型)과는 별도로 국제적으로 섬유 상류와 섬유 중류가 그룹화하여, 시장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리라는 견해가 있다.

섬유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한계에 다가갈수록, 모든 나라 및 시장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소망과 행동이 강해질 것 같다. 그러한 방향으로 원하면서 행동하려는 뚜렷한 경향은 중국, 인도, 터키 등의 나라들에서 느낄 수 있다. 세계 섬유 생산능력의 약 40%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보다 생산량을 확보하려는 것을 멈출 징후가 안 보인다.

인도는 2006년에 섬유 제품 수출이 180억 달러였으며, 2010년까지는 5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키는 디자인과, 국가보상(國家報償)하는 품질 규격에 의한 품질 향상으로, EU시장에서 큰 세어(share)를 획득하였는데, 더욱 규모를 확대하고자 터키 인구 7,041만명 중에서 2,000만명이 섬유 관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유발하고 있다.

터키는 전 수출액의 45%를 섬유 제품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며, 2004년 섬유 제품 수출은 176억 달러였는데, 2010년까지는 348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관민(官民)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 터키가 모두 세계적인 기하급수적 성장을 가로막는 한계가 다가오는데 따라, 서둘러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상에서 섬유공업과 섬유유통,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습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의 섬유 어패럴 제품 수출액은 2006년에 1,400억 달러를 넘었다. 중국 정부는 구미의 반발을 피하기 위하여, 2007년 7월부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증치세 환부율을 큰폭으로 낮추었는데도 섬유 제품 수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 증치세 환부율을 낮추었는데도 섬유 제품 수출이 줄지 않았

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에서 섬유 제품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원천적(源泉的)인 힘은 농민출신자를 포함한 민간자본자가 이익을 올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은 하등정번품(下等定番品)을 대량으로 생산하던 단계에서는, 대차대조표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어려운 기술을 모르는 공장경영자도 큰 공장의 경영자로 되었고, 이익도 많이 올렸었다. 다행히 산업이 계속 발전하여 이익도 순조롭게 오르기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물 부족’이다. 20세기 말에 중국 600개 주요도시 중에서 물이 부족한 도시가 110개이며, 전국 도시의 물 부족량은 60억 m^3 로 추정되며, 2007년 8월에는 지역에 따라 일시적인 홍수가 일어났는데도 물 부족량은 2,000년대에 들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산업인 섬유공업을 받치고 있는 염색·날염공업의 용수량(用水量)도 크다. 1999년 시점(時點)에서 용수량은 64억 m^3 인데, 그중에 깨끗한 물의 사용량은 58억 m^3 이며, 재이용율은 10% 밖에 안된다. 1999년의 염색·날염공업의 폐수배출량은 중국의 전 공업중에서 넷째였다. 현재도 그 순위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배수에 따른 오염은 여전히 심해지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생기는 냄새뿐만 아니라 배기나 고형폐기물도 계속 많이 생기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기술을 만들어 내도록 하기 위해,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생산기술과 그 이익을 환경에 투

자할 만한 능력을 공장경영자에게 엄격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염색·날염공업계에서는 기술계 경영자가 유리하게 되어가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서는 화이트 칼라족의 기술자가 공장 현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적다는 것이다. 그들이 일본처럼 공장 현장작업자와 함께 일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모두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보기 어려운 공장이 적지 않다.

1990년부터 불황을 모르는 호황으로 공장 현장작업에 정통(精通)한 기술자를 각 공장끼리 서로 자주 빼앗아 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빼앗아 갔으니 뒤통나게 빼앗아 오고 있어, 공장마다 안정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탄하는 공장경영자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중국 절강성 소흥현 정부(中國 浙江省 紹興縣 政府)는 현내(縣內)에 있는, 화합섬산지(化合纖維地)로 유명한 소흥산지의 섬유공장에 기술수준이 높은 외국인 섬유·염색·날염기술자를 높은 급여로 맞아들이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제3 변모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단으로도 보인다.

그 내용은 이제까지 중국의 여러 성(省)이나 시(市), 현(縣) 등의 정부에서 생각해 낼 수 없었던 아이디어로 가득찬 정책이었다.

외국인 기술자 초빙 세미나에 한국인 기술자 50명을 초대하고, 톱 클래스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를 높은 급여로 고용하는 공장에게 기술자 1명에 2만 5천 인민위안(人民元)을 기업에게 보조하기로 하였다.

소흥현 정부는 일본이나 구미의 전문기술자를 소흥현의 염색·날염공장에 많이 초대한다는 것은 현상태에서는 문제의 해결이 그리 쉽지 않다고 판단

해서 그런지, 이번 외국인 기술자 초빙은 한국인 기술자에 국한하고 있다.

한국측은 이런 제의를 받아들여 소흥현의 세미나에서 80여 항목의 기술을 중국 섬유공장측에 소개하고, 기술 제휴와 지표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商談)도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는 소흥현의 섬유·염색기업 26개사가 한국으로부터 수준 높은 기술자를 도입하려는 뜻을 밝히고, 소흥현 31개사가 한국측이 제안한 섬유·염색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제휴하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중국 절강성 현대 방직공업 연구원이 한국의 ‘서울 텍스타일 디자인 센터’와 기술개발에 관한 ‘전략적 기술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지는 추측하기 어려우나, 중국 섬유공업이 하등품(下等品)분야 대상 저가제품에서,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상위(上位) 섬유품종으로 올라가며, 환경과 생산이 함께 조화되어, 각각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가이드 라인을 소흥현 정부가 이런 시책으로 보인 뜻은 크다.

이런 시책이 단계적으로 지장없이 추진되면 여러 외국 섬유공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소흥 섬유산지는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유력한 섬유공업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산지가 성장을 제약(制約) 받으면서도 세계 섬유공업의 제한내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다.♣